

순천효산고&순천제일대, 고교-대학 상호연계협약

일학습병행 · 고교학점제연계 등 위한 새로운 시도

“각 학과 단계형 심화취업성공모형 만들어 발전 힘써”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는 7월 15일 순천제일대 인제관 2층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안효승)와 지역사회의 일학습병행 취업인재육성을 위한 고교-대학간의 상호 연계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상경 교장을 비롯해 조호훈 교감, 김금삼 진로교육부장, 김석진 교육혁신부장, 김수정 스마트교육부장 등이 참석하여 순천제일대와 일학습병행, 고교

학점제연계 등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다.

순천제일대학교도 안효승 총장과 여러 보직교수 및 각 학과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양교의 학과별 직업교육과정을 탐색하고 인적 물적 상호교류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최상경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성화

고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체제를 학생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며 “지역의 취업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교-대학간의 단계형 진로교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안효승 총장은 “양교의 공통점이 많은 것을 착안하여 각 학과의 단계형 심화취업 성공모형을 만들어 양교의 발전에 힘쓰자”고 전하면서 “이 협약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새로운 교육희망으로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소방서 ‘오늘은 나도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옥룡초,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광양소방서는 최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옥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향상 및 진로 설계지원을 위한 소방관이 함께하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이란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습체험교육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 채용과정 소개 · 진로 안내 ▲방화복 · 공기호흡기 착용 ▲소방제복 입어보기 ▲무전기 사용을 통한 상황전파 훈련 등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소방관 체험 등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을 제공했다.



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찾아온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재진압복장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해 본 후 굉장히 무거워서 키가 클 수 없겠다.”며 웃음을 자아내는 시간을 가졌다.

소방서 교육담당자는 “학생들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방사명과 제복공무원의 직업세계 소개로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기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나주공업고등학교-나주소방서 업무 협약 체결

담양교육지원청, 담양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나주공업고등학교(교장 임언택)는 7월 15일 나주공업고등학교 회의실에서 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와 학교 및 소방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나주소방서는 학생 및 교직원의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소방관련 진로 컨설팅 및 각종 체험활동도 적극 돕기로 했다.

또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나주소방서 소방대원의 지역의 재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굴삭기, 지게차 등 중장비 운용기술 및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는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나주공업고등학교 임언택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와 소방서간의 상호 협력이 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중마초,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맑아 삶 일치시키는 교육

광양중마초등학교(교장 이상인)는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 학생들의 맑아 삶 일치시키는 교육을 통해 마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마을을 담은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 2학년은 사리실 예술촌 오윤종 강사와 함께 에코백 만들기를, 3학년은 마을교육 활동가 김은하 강사의 지도로 수채화 그리기를 하였다.

이제 막 학교생활에 적응한 1학년들은 고사리손으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에코백 만들기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

다. 미술 교과를 처음 접하는 3학년 학생들은 수채화의 특징을 배우고 붓을 덧칠할 때마다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느끼며 수업을 마쳤다.

수채화 수업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수채화 수업을 통해 물감 사용하는 방법과 명암을 넣어 색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인 교장은 ‘옛말에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힘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배움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의 얼 계승 교육 프로그램

‘다산 정약용 1호 제자 지원 향상’의 저자에게 듣는 이야기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채

현)은 7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강진의 얼 계승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산 정약용 1호 제자 지원 향상’의 저자 송하훈 소설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강진의 인물, 강진의 얼’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2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용은 ▲ 다산이 일러준 이상적 주거 ▲ 다산이 꿈꾸었던 사회 개혁 ▲ 다산에

게서 배우는 청렴 ▲ 다산과 지원 향상의 삶과 문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진작전중 2학년 강윤희 학생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18년의 유배기간 동안 독서와 저술에 힘을 기울여 그의 학문체계를 완성한 사실이 놀랍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저술과 업적을 남긴 곳이 우리 고장 강진이라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의 중요성과 좋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까지 알게 되어 매우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